

## 이진준 작가 인터뷰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뜰  
일시: 2009년 10월 2일 늦은 4시  
기록, Interviewer: 김홍식

1

### 강물을 거슬러 올라 연어 설득하기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을 설득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sup>1</sup>

이진준은 미디어 및 설치 작업, 실험영화, 퍼포먼스 상황극, 조각, 드로잉 등 다양한 장르와 예술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조소과 출신 작가이나 이전에는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광고를 공부했고 방송국 다큐 PD로도 활동한 바 있다. 그러한 그의 경험은 그의 감성으로 녹아들었고 사회 시스템의 권력 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반영해 문제의식을 더욱 심도 있게 드러내고 있다. 작년 2008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젊은 모색전에 참여했고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가 될 조형물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서울시립미술관의 2009 아시아넷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인터뷰는 2009 아시아넷 전시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 마당에서 이뤄졌다. 그 곳에 전시 중인 이진준 작가의 전시를 보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의 프로필-특이한 부분이 있었지만 먼저보고 물어 싶지 않았다. 그 전의 이력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선입견을 입혀서 그를 대하고 싶지는 않았다. 전에 그가 나를 인터뷰를 했을 때 잘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인터뷰 중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설득이었다. 규정되어 지기를 거부하는 그러나 자신의 얘기를 씬 없이 일관되게 말하는 작가이고 싶어한다. 그의 작업은 타협이 아닌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얘기한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끈질기게 차근차근 상대를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싶어 한다. 그의 설득! 그 말이 내게 설득력이 있었다.

**Q> 여관을 좋아하나? 최근 통의동 여관 작업<sup>2</sup>을 보았다. 전에도 여관 작업이 있었다.**

**A>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 우선 여관은 집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잠자고 쉬고 하는 행위를 하는 곳이지만 잠시 머물 집은 아닌 임시 공간이다. 지하철<sup>3</sup>, 계단, 여관이라는 공간들

<sup>1</sup> 강산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중에서 인터뷰 도중 이작가가 가수 강산애를 닮았다고 느꼈다.

<sup>2</sup> <Urban & DISurban > 복합매체를 활용한 이진준의 설치공간 "Your Stage"는 물성화된 현대인의 존재여부를 자문하는 행위와도 같다. 실재이나 비현실적 공간으로 여겨지는 그의 작업에서 거울과 유리에 의한 복잡한 반사체계는 투영된 인간의 존재를 그 구조와 분리시키지 않는다.

<sup>3</sup> <Metro in Seoul> 전철 안을 일탈적 상황이 벌어지는 무대로 상정하여 우스꽝스럽고 때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여 승객들의 반응을 관찰한다. 실제로 승객들 대부분은 이러한 상황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애써 외면하거나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관성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

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계단은 일층도 이층도 아니고 일층과 이층을 연결시켜주는 공간이며, 여관은 집도 아닌 것도 아닌, 지하철은 공공인 것 같으면서 개인의 공간이다. 버스의 경우는 좀 다르다. 운전사 혹은 차장이 있어 계급이 존재한다 또한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시켜 주는 수단이자 공간과 공간을 잇는 매개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여관은 그 장소와 거기 머물다간 사람들의 역사, 물리적 기억을 담은 낡은 공간들이기도 하다. 여관이 가지는 생경함,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이 거쳐간 공간. 관객이 여관에 들어서서 처음 보는 것은 무엇일까? 작품을 대하기 전의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보자. 여관의 오래된 폐허가 된 공간이 우선 들어올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코로는 흑하는 곰팡이냄새를 맡는다. 빼그덕하는 낡은 건물을 올리는 관객 자신의 발자국까지 그-관객에게 다가온다. 그 모든 것이 그의 작업에 들어온다. 이 모든 것을 지나고 관객은 이진준을 만난다. 그 곳에서 Uncanny한 공간과 상황이 벌어짐을 체험하게 한다.

**Q> Your Stage에서도 빛의 장관을 맛보지만 통의동 여관이라는 공간에서 만난 낯선 빛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빛 얘기를 해보자.** 여관에서 송고한 빛을 본 듯하다. 웬지 붉은 빛이 어울릴 것 같은 장소에서 파란 - 터렐을 연상케하는 경건과 송고를 나타내는 색의 빛이 보여졌다. Uncanny 묘하게도 파란 색이 무지하게 잘 어울렸다는 것 그 장소를 거친 인간 군들의 그 내면에 있을 법한 그런 빛을 보았다. 나오지마의 터렐 작업은 일종의 선승이 관리하는 사원 방문 같았다.

**A>** 터렐의 빛 작업은 송고를 강요한다. 작업은 치밀하게 계산된 작가의 개입으로 작업에의 몰입을 요구한다. 터렐의 사원에서 이뤄지는 참선이나 그런 시스템적인 통제를 하고 싶지 않다.비슷한 이유로 빌 비올라를 좋아하기도 싫어하기도 한다. 비디오 편집 장난을 안 한다는 점은 좋고 비디오 예술이 가진 장점을 너무도 잘 이용한다는 점은 싫다. 비디오 예술로써의 비디오작업은 영화 등의 매체보다 더 비판적인 것인데 빌 비올라가 계산하여 이뤄내는 몰입감은 다분히 영화적으로 쓰인다. 그는 비디오 작가가 아니라 오히려 " 세심한 설치 미술가"로 보인다. 몰입감을 강요하며 송고나 명상, 집중을 얘기하고 싶어한다. 영상을 위한 설치작업 영상에 집중하기 위한 장치,, 또 다른 형태의 제어들을, 나는 그것을 단절시키고 다르게 보이고, 집중을 방해하고 싶다. 자유롭게 예술작품 본연으로 돌아가는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상황으로 몰고 가는 집중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는 그대로의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볼 수 있게 된다. 나는 Illusion을 위해 파란 네온등을 사용한다. 동시에 몰입감을 방해하려한다. 현실에서 깨어있길 바란다.<sup>4</sup>

**Q>** 이제는 이 질문을 해도 될 것 같다. 될 때인 것 같다 이 질문으로 인해 선입견을 갖게 되고 싶지 않아 미웠었다. 최고 엘리트라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다. 공중파 다큐PD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한 경력이 어떤 영향을 끼쳤나, 혹 '왜 그거 다 놔두고 작가의 길을 택했나'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

**A> 이전에는 질문하는 이가 듣고 싶어하는 데로 대답해 주었다.**

폭력적인 관점, 즉 자신이 듣고 싶은 데로만 들으려 하는 태도를 지닌 이들이 많다. 타인을 배려하고 동정, 독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

<sup>4</sup> 프로파간다 (나치/ 구조주의자) 진보주의자(마케팅 전술, 광고전략)들의 전략이다.

지금은 내 생각을 말해준다. 경영학을 하는 것과 작가로서 사는 것은 다르지 않다. 경영학은 시스템적 구조를 가진 학문이다. 그것은, 시스템적은 전체를 구조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미술을 한다' 함은 나무-안을 바라보게 한다. 그 과정은 안과 밖을 유기적으로 동시에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고 본다. 나는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양가적간인듯하다.ㅋ

**Q> Your Stage - 너의 무대는 제목부터 다분히 연극적으로 느껴진다. 제단 같다고도 느껴졌다.**

**A>** 네온의 불빛은 다른 공간을 펼쳐준다. 거울과 유리 일정한 커다란 다투 등을 이용 공간감과 그곳에 실제로 덩어리를 넣으므로 가상적으로 느껴지게 하고 한 단계 단을 쌓아 높여 설치했다. 관객은 무대 위로 올라선다. 스텐의 구조물에, 유리창안에 반사되는 보고 있는 당신을 보라, 이미지의 동시성에 관한 생각들을 얘기하고자 했다. 관객은 관객이자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Identity의 해석이다. 반경- 움직이는 것 점~이길 기대하는

내 작품은 일종의 연극 같은 거다. 장을 펼쳐 놓았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는 도시는 세트장이다. 드라마보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연극적이다. 당신들의 무대이다.<sup>5</sup> 우리 삶은 연출가가 따로 있는 것 같다. 신이 아니더라도 알 수 없는 질서 같은 것이 존재함을 느낀다.

**Q> 다음 작업을 소개하자면?**

**A> Your Stage.** 지금까지 해온 작업들에서 보여지는 연극적, 시각적, 사회 맥락적 질문들을 응축, 수용하고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구조물은 오브제가 아닌 다른 공간을 들여 놓는 것으로 그 작업이 어디 설치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이다. 빛, 유리가 여전히 작용할 것이다.

유리를 2개 끼우는 이유는 같은 맥락 연극형태 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미술관에서 행해졌던 6인의 모노 드라마와 연결 된다. 모노드라마를 펼치는 무대의 두 겹의 장막장치가 이후 2개의 유리로 끼우는 작업과 연결 되는 것이다. 이종의 유리문과 이종의 장막, 레이어와 의미의 층위, 시각에 대한 문제, 공기에, 그 것을 나눈다, 단절시킨다는 의미이다. 유리와 거울은 다르다. 거울은 마초적 매체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식스센스적<sup>6</sup> 인간들이 되어 살아간다."

유리창 너머 바깥세상을 바라 볼 때 비로서 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옛날, 선조들은 청동거울 보다 유리 거울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감시체제는 어떨까?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 걸까 국정원? 아니 우리도 그들을 보고 있다.

**Q>작가는?**

**A>** 사람의 존엄성 **개인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하다.** 좋은 작가가 됨은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뜻이라 생각한다. 내 삶의 과정들을 비교하자면 경영학은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닌

<sup>5</sup> 또 다른 **Your Stage** <무르반고기반 >은 학살 등 작가들이 할 법한 상투적인 주제로 퍼포먼스 시작된다. 하지만 그건 연막일 뿐이다. 관객 속에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30여명의 작업 팬들을 배치해 놓는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이다.) 지시를 받은 '작업팬'들은 처음 30분은 옆의 관객과 친밀해지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후반 30분은 멀어지기- 퍼포먼스나 연기를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항상 똑 바른 자세의 남자는 가끔 마구 소리 지르고 싶다는 욕망대로 소리지르기를 한다. 틱 장애를 가진 남자는 관객 안내를 하다가 틱 장애 입을 드러낸다.) 이로써 관객들은 멀어지고 동시에 30명의 섬 -Your Stage가 시작된다. 관객들은 새로운 경험, 즉, 그 섬과 섬 사이에 존재함으로 인해 일종의 군중 속의 고독이나 혹은 소외감을 공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연출되었다.

<sup>6</sup> 브루스윌리스 주연 유명영화. 그는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 그가 유명이었다.

management<sup>7</sup>하는 것이고 작가는 시대의 광대이다. 무언가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작업을 하게 하고 무언가를 만들게 한다. 나한테서 작가는 지금의 문제이다. 나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가며 -타협이 아닌- 설득 중이다. 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세계가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작업하려 한다.

김홍식은 평면 및 설치 작업을 하는 작가이다. 도시 혹은 도시 근교에 밀집해 살고 있는 현대인의 일상의 삶 등을 자신의 시선을 통해 투영해 낸다. 카메라로 이미지를 담아낸 후 주로 스테인리스스틸 위에 부식시키는 독특한 기법으로 표현한다. 10회의 개인전과 국립현대미술관등의 다수의 기획, 단체전에 참여했고 몇 개의 전시 기획과 진행도 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박사과정 재학 중이며 이화여대와 단국대에 출강 중이다.

---

<sup>7</sup> 오늘날에 와서는 경영을 하나의 사회구성체로 보면 경영은 '조직'이며,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며, '경영한다'라고 하는 과정개념으로 보면 경영은 의사결정이라고 인식되고 있다.